

“피부에 못 보던 점... 손발톱에 검은 줄... 병원에 가 보세요”

광주일보·전남대병원 공동주최

테마가 있는 건강강좌 (144)

피부암

피부암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젊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는 '피부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암은 우리 몸의 피부에서 발생하는 악성 암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가장 넓은 장기로 표피, 진피, 피하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부 부속기라 하여 땀샘, 모발, 손발톱 등이 있습니다. 피부암은 이러한 피부의 모든 구성 세포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 종사자 피부암 환자 많아=동양인에서의 발생빈도는 서양인에 비해서 훨씬 적지만 자외선 노출이 많아지고, 피부에 각종 유해 물질들이 노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피부암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수명의 증가로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평생 자외선에 노출된 노인들의 피부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 피부암 환자가 많습니다. 피부암은 표피의 기저세포에서 발생한

는 기저세포암이 가장 흔하고, 각질형성세포에서 발생하는 편평세포암이 두 번째로 많으며 멜라닌세포에서 기원하는 흑색종이 세 번째로 많습니다.

◇손발톱의 검은 줄 생기면 병원 찾아야=피부암은 처음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렵거나 아프거나 하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암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피부암인 기저세포암은 주로 얼굴에 검버섯처럼 아무런 증상이 없고 갈색이나 검은 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검버섯으로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피부암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차 크기가 커지거나 튀어나오거나 건드려면 쉽게 혈고 피가 나는 경우, 검버섯이 줄고 레이저로 제거 했는데도 재발하고 피가 나는 경우도 기저세포암의 가능성이 큼니다.

편평세포암은 얼굴에 까칠까칠한 각질로 시작되어 잘 낫지 않는 상처처럼 그냥 빨갛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손발바닥의 검은 점이나 손발톱의 검은 줄은 흑색종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흑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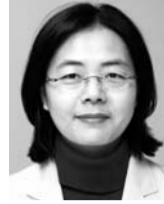
‘천의 얼굴’로 나타나는 피부암 손발바닥·손발톱에 많이 발생 햇빛 노출이 가장 큰 원인 조기 진단 뎀 수술로 완치 가능

종은 피부암 중에서도 가장 예후가 좋지 않아 위험하고 치명적인 암입니다.

이렇게 피부암은 다양한 모습으로 “천의 얼굴”로 나타납니다. 다행인 것은 피부암은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나 몸의 어느 피부라도 이전에 없던 새로운 병변이 생길 때는 피부암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햇빛 노출이 주 원인=이러한 피부암의 원인은 다양하며, 햇빛 노출이 피부암의 가장 많은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햇빛의 자외선은 피부세포의 DNA에 손상을 입혀서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변화하게 합니다. 농업이나 어업 등에 종사하는 분들은 일을 하는 동안 강한 햇빛에 오랜 시간 노출돼 자외선 노출이 축적되면서 피부암 발생이 더욱 흔합니다. 기저세포암은 자외선노출이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편평세포암 또한 자외선 노출이 주요한 원인

윤숙정 피부과 교수



- 국제피부병리전문의 자격증 획득
- 미 텍사스대 피부과 피부병리 연구
- 펜실베이니아 대학 병리과 방문교수
- 화순전남대병원 피부과장

이지만 흉터, 화학물질, 열에 의한 손상, 바이러스 감염, 면역억제 등도 원인일 수 있습니다. 흑색종은 서양에서는 주로 햇빛 노출 부위에 잘 발생해 자외선 노출이 그 원인으로 추측해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손발바닥, 손발톱과 같이 말단 부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외상, 만성적인 자극이나 압력 등에 노출되는 것도 그 원인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부암을 진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직검사입니다. 의심되는 피부병변의 일부를 떼어내어 조직학적으로 병변을 확인함으로써 확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직



윤숙정 피부과 교수가 피부암의 원인과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제공>

검사를 통해 앞서 언급한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흑색종 이외에 피부부속기암, 파제병, 유방외파제병, 피부림프종, 피부육종, 전이암 등 다양한 피부암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피부암이 확인되면 진단된 피부암에 따라 다양한 치료를 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의 한 부위에 국한된 피부암의 경우

수술적 절제를 하게 되며, 조기 진단시 수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증상이 없더라도 갑자기 생기는 점이나, 빠르게 자라는 병변, 출혈이나 궤양을 동반한 병변이 있다면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길 추천합니다.

/정리=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개원 109주년 ... “환자중심 스마트병원” 다짐

어린이병원 개원 2주년

“새로운 인술 100년 열겠다”

전남대병원(병원장 이삼용)이 개원 109주년을 맞아 미래 의료를 선도할 환자중심의 최첨단 스마트병원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6일 병원 6동 백년홀에서 개원 109주년 및 전남대학교어린이병원(병원장 김찬중) 개원 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삼용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술한 역사의 질곡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하루, 알찬 1년이라는 탄탄한 디딤돌을 쌓아왔기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맑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의료를 선도할 환자중심의 최첨단 스마트병원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또 이삼용 병원장은 “앞으로 선진진료와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연구력 강화에 주력하겠다”며, 내부적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건전 노사관계를 유지해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전남대병원은 26일 병원 6동 백년홀에서 전남대병원 개원 109주년 및 전남대어린이병원 개원 2주년 기념식을 갖고 환자중심 최첨단 스마트병원으로 새로운 인술 100년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전남대병원 제공>

더욱 힘 쓰겠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은 연구력 강화를 위해 의생명연구지원센터는 오는 11월 전남대의과대학 부지 내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의생명연구지원센터는 차세대 국가성장 동력인 첨단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연구인프라로서 의생명연구의 충전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남대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올해 첫 사업인 개방형실험실도 개소해 기업과 병원간의 연구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이삼용 병원장의 기념사에 이어 김찬중 전남대어린이병원장은 “어린이병원 전직원은 지난 1년 동안 지역거점어린이병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려 왔다”면서 “앞으로 국내 유명 대학 및 연구소와 협약을 맺어 어린이 질환치료를 위한 선진적인 의료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병원은 개원 이후 현재까지 외래환자가 하루 평균 140여명이며, 지금까지 입원환자를 포함해 총 환자수가 5만 8000여 명에 달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신세계안과, 노안·백내장센터 확장

외래센터 분리 ... 대기시간 줄이고 1:1 맞춤형 상담

광주신세계안과(대표원장 김재봉)가 노안·백내장센터를 더욱 확장해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외래센터와 노안·백내장센터가 분리돼 고객들의 대기시간이 현저히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진료에 전문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확장된 노안·백내장센터는 특수검사실과 상담실, 진료실, 대기실 등이 갖춰져 고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1:1 맞춤형 상담 및 진료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센터를 확장하면서 기존의 외래센터는 망막진료와 안구건조증 등 안질환에 더욱 전문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신세계안과 노안·백내장센터는 호남 지역 최초로 같이 필요없는 카탈리스 레이저 장비와 젤토 장비를 도입해 더욱 완벽한 노안·백내장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또 세계 최초의 비접촉식 초정밀 장비 IOLMaster 700, 자동안구추적 장치인 베리온과 각막형태를 정확히 검사하는 카시니, 무산동 광각안저카메라인 옵토맥 등 전국 최고의 백내장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다.

더불어 리사트리, 테크니스, 버니, 리라 렌즈 등 호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보유하고 고객 상태에 따른 렌즈를 삽입하고 있다. 특히 카탈리스 레이저를 활용한 노안 및 백내장수술은 호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3000례 이상 수술을 기록해 인증서를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독일의 칼자이즈에서 제작한 Cirrus AngioPlex OCT를 도입했다. 이 장비는 망막의 3차원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빠르게 촬영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3D 실명 질환인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등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도와준다. 특히 조영제 없이 망막 혈관검사가 가능해 조영제 투여로 인한 부작용이 전혀 없게 됐다.

광주신세계안과 김재봉 대표원장은 “노련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력교정을 위해 노안·백내장 수술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호남지역에서 노안·백내장수술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가장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더욱 안전한 수술로 지역민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투자가치 좋은 경매물건 추천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표지원 1계(061-270-6691) / 매각기일 : 2019.10.14(월) (10:00)

2018타경8300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62-12 외 2필지	
물건종별	임야	감정가	1,712,816,000원
토지면적	19835㎡(6000.088평)	최저가	(70%) 1,198,971,000원
건물면적		보증금	(10%) 119,900,000원
매각물건	토지 매각	소유자	유한회사리치산업
개시결정	2018-11-19	채무자	유한회사리치산업 외 3명
사건명	임의경매	채권자	김현성외1
관련사건	2019타경3593(중복), 2019타경3609(중복), 2019타경3616(중복)		



매각토지 건물현황 (감정원 : 인산감정평가 / 가격시점 : 2018.11.29)						
목록	지번	용도/구조/면적/토지이용계획	㎡당 단가 (공시지가)	감정가	비고	
토지	1	월암리 62-12	준보전산지, 하수처리구역,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임야 7376㎡ (2231.24평) 109,000원 (12,600원)	803,984,000원	현황 '목전'
	2	월암리 62-15	준보전산지,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임야 2189㎡ (662.173평) 68,000원 (10,700원)	148,852,000원	현황 '목전'
	3	월암리 62-16	준보전산지,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임야 10270㎡ (3106.675평) 74,000원 (7,640원)	759,980,000원	현황 '목전'
합계		면적소계 19835㎡(6000.088평)		소계 1,712,816,000원		
합계		토지:19835㎡(6000.088평)		합계 1,712,816,000원		토지 매각

